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갇힌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의 비밀

영화 '직지코드' 6월 28일 개봉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
숨겨진 역사 찾는 추적 다큐

직지 보관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제작진에 직지 열람 허락 안 해
기상천외한 취재 과정 담아 눈길
정지영 감독 등 '실력파' 제작진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는 직지(직지심체요절)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이 물음에서 시작된 궁금증은 꼬리를 물어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갇힌 직지의 비밀을 파헤치기에 이른다. 유럽 5개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의 역사적 비밀을 찾아 헤매는 추적 다큐멘터리 '직지코드'가 6월 28일 개봉된다.

직지는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 등을 담고 있는 불전이다. 1377년 고려 흥덕사에서 인쇄됐는데,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본보다 약 70년 앞선 때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영화 '직지코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보관된 우리 문화재 직지를 찾아 나서며 그동안 숨겨졌던 역사를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작진은 '구텐베르크의 서양 최초 금속활자 발명은 당시 동양 최고의 문명국 고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고 여정을 시작한다.

특히 직지의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석연찮은 반응에 더욱 집요하게 파고드는 제작진의 기상천외한 취재 과정은 극영화를 뛰어넘는 긴장감과 희열을 더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5개국 7개 도시에서 로케이션이 진행됐다. 앞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호평을 받았다.

홀리가든 측은 "동서양 금속활자 문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 파리부터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각국과 한국을 오가는 제작진의 여정은 다큐멘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생생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영화는 2012년 김명호 前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의 실제 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법정스릴러로 평단과 대중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부러진 화살'을 연출했던 정지영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냉철하고 뚜렷한 주제의식의 작품들로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제시하는 대표 지성파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이번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우광훈 감독과 함께 유럽 5개국 7개 도시 대장정을 완수한 제작진은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터'(2013)로 주목받았던 실력파 군단이다.

총괄제작 정지영 · 연출 우광훈 감독에 더해 제작진의 탄탄한 취재력이 '직지코드'에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독 우광훈 · 데이빗 레드맨, 제작 아우라픽처스, 배급 엣나인필름, 러닝타임 102분.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의 역사적 비밀을 찾아 헤매는 추적 다큐멘터리 '직지코드'가 6월 28일 개봉된다. 사진은 '직지코드' 스틸컷. 홀리가든 제공.

국립중앙博 6월 '큐레이터와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와 7시 2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6월 한 달간 큐레이터 대화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와 '아라비아의 길'을 큐레이터가 직접 해설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특히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는 서화 · 서적 · 도자 · 금속공예 등 다양한 국보와 보물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로, 큐레이터와 대화에서는 전시품의 미적가치와 지정사유, 지정관련 정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 전시설명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오아시스와 사막에 핀 여러 문명들, 이슬람교의 발생부터 20세기 초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의 역사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세부 주제와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참조. (02)2077-9455 박아름 기자

불교문화의 寶庫 '둔황 예술' 서울서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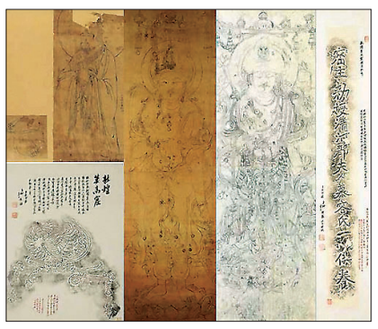
〈보고〉

주한 중국문화원,
'둔황 예술전' 6월 10일까지

불교 문화재의 보고이자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중국 간쑤성 둔황 예술의 극치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실크로드:문명 융합의 기억-둔황예술문헌전'이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6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문화 전략 일환으로 둔황의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둔황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사신 장건이 개척한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 각지 문화가 만나던 동서양 교류의 거점 지역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진 4세기부터 둔황 지역엔 수많은 승려가 거쳐가면서 불교 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불상이 많아 '천불동'으로 불리는 막고굴은 약 500개 굴로 이뤄진 세계 최대 불교 예술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둔황막고굴 벽화 밑그림 및 탁본들. 왼쪽부터 불교조상:천수관음보살과 파수선(부분), 불교조상:양지관음보살, 보살(연필본), 불교조상:벽화탁본 공양인 머리말2, 왼쪽 아래는 오대시기 귀부인 봉관 머리장식 탁본. 주한 중국문화원 제공

이번 전시에서는 장대천(1899~1983)이 막고굴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1940년대에 그린 밑그림을 비롯해 1940~1950년대에 막고굴의 옛 모습을 담은 원판 사진, 1940년대 막고굴의 벽화 및 둔황에서 벽돌로 탁본한 탁편 등 전시된다. 탁편 중에서는 둔황 61호굴의 오대(907~960) 시기 작품으로 봉황 형태 머리 장식과 새 무늬가 돋보이는 공양인상 등이 선보여진다.

이뿐 아니라 2000년 이상 이어온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역사적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둔황을 소재로 한 현대 화가들의 회화 등 50여 작품도 전시된다. 4D로 재현한 둔황 비천(하늘을 나는 선인 그림)과 둔황 다큐멘터리도 감상할 수 있다.

'크고(敦) 성대하다(煌)'는 뜻의 돈황은 한국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와는 인연이 깊다. 20세기 초 17호 석굴 장경동에서 발굴된 2만 여점 유물 속에서 세계 4대 여행기로 평가받는 통일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됐다. 최근에는 삼국시대 한반도 사람들을 묘사한 돈황 벽화가 40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박아름 기자

천년 황금빛의 비밀 '수은도금'

법련사 불일비술관, 6월 21~27일 오세종 초대전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오세종 작가의 '천년 황금빛의 비밀 수은도금' 展을 6월 21~27일 2관에서 개최한다.

오세종 작가는 '금동불'이란 말을 처음 듣고 왜 금동불이라 하는지, 또 청동불과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감은사 사리함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를 만났다. 오 작가는 두 유물의 찬란한 황금빛의 비밀이 왕수(진한 염산+질산)를 거쳐 나온 금사리를 수은에 입히는 아말감도금법이란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매료됐다. 이후 꾸준히 옻칠과 아말감도금 기법을 활용,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 작가가 새롭게 수은도금처리한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고종황제 어새' '상원사 봉황보당' 등 15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오세종 작가는 문화재수리기능공으로서 올해 예산 수덕사의 목조삼세불(보물 제1381호)의 보수 및 생옻칠 개금 작업을 실시했다. 1979년 4월 불교미술에 입문, 1993년 제14회 불교미술대전 입선 및 2000년 제25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서 〈수은도금 금강저〉로 입선한 바 있다. 현재 문화재 기능인협회 재정이사를 맡고 있다.



상원사 봉황보당

박아름 기자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